



## Lucas · Stokey 교수와 다이얼로그



우리 경제학부와 금융경제연구원은 2013년 6월 25일 시카고대(University of Chicago)의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교수와 낸시 스토키(Nancy Stokey) 교수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거시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루카스 교수 및 스토키 교수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터라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본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Lucas · Stokey 교수와 다이얼로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제 1부에서는 우리 학부의 이지순 교수, 김세직 교수, 윤택 교수가 참여하여 경제발전, 금융, 재정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지순 교수는 “North-South Korean Issues: How to Turn a Disaster into a Miracle?”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을 추정하는 모델과 방법 및 남·북한의 경제를 비교한 결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지순 교수는 북한 경제 상태에 대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한 이중경제 (dual economy)와 통제가 심한 (tightly controlled) 폐쇄경제 (closed economy)의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북한 경제는 루카스 교수가 제안한 master-slave 모형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사유화 (privatization),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확충 (physical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개방 (opening up)과 이를 통한 경험적 학습 (learning by doing)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김세직 교수는 “Working Capital, Trade and Macro

Fluctuations”라는 주제로, 금융부문의 신용경색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실물부문의 생산량과 무역량을 줄이는지를 설명하였다. 생산단계 (production stages) 혹은 오프쇼어링 단계(offshoring stages)의 개수를 늘려 전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그 생산사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총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의 크기는 2차함수관계(quadratic)로 증가하지만 경제 전체의 운전자본에 대한 수요는 선형적(linear)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대출이 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들이 느끼는 운전자본의 조달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생산단계의 개수를 줄이거나 오프쇼어링 단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생산량과 무역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택 교수는 국가 부채 (public debt)가 총 수요 (aggregate demand)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로(channel)가 존재하는데, 특히 금융불안(financial friction)과 관련된 경로는 높은 수준의 부채가 존재하는 시기에 국가 부채의 증가가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가 부채의 전이 메커니즘(transmission mechanism)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으로, 금융 불안과 관련된 경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사이의 상호작용 (interaction)에 급격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두 시간 가장 진행된 1부 행사가 있는 후, 2부 행사인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과 Lucas · Stokey 교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우리 학부와 대학원에 소속된 많은 학생들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세계적 석학 루카스 교수와 스토키 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김인준 교수 정년기념 특별강연 즐겁게 왔다가 즐겁게 간다.

중광 스님이 세상을 떠면서 괜히 왔다가 간다고 하였다. 나는 서울대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즐겁게 왔다가 즐겁게 간다”

내가 고별강연에서 하고자 하였던 이야기는 정년에 맞추어 출간한 ‘위기극복 경제학’과 ‘Overcoming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perience’에 실었다. 여기서는 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고자 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훌륭히 성장해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기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곡과 위기를 맞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인생의 굴곡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 어떻게 경쟁력을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결단이 요구된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거시경제학은 크게 경기변동, 경제성장, 경제위기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본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외부적인 충격과 고도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 변동과 경제위기에 보다 크게 노출되어 있다.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물부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경기변동 때와는

달리 과감한 금융과 재정 정책 조합을 통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실물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여러분이 미시경제학 분야에서는 수요와 공급, 비교우위, 기회비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크게 해석하면 수요와 공급의 의미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우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농구 황제인 마이클 조던도 그가 좋아하던 야구에서는 2군 선수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기회비용의 의미는 누구든지 모든 일을 다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우리 세대보다 뛰어나야지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풀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앞으로 선생님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라는 호연지기를 갖기를 바란다.



▲ 고별강연 중인 김인준 교수

## 경제학부 학술행사

## The Fifth Asia Joint Workshop in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 제 5회 동아시아지역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본 학술대회는 2013년 3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오션스위치 제주호텔에서 진행되었다. 경제연구소 소장 이영훈 교수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우리 학부의 이지홍 교수와 대만 중앙연구원의 웨이통주양(Wei-Torng Juang)은 각각 “Repeated Implementation with Finite Mechanisms and Complexity”와 “Experimental Learning Stochastic Stability”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US의 Satoru Takahashi 교수가 “Contagion and Uninvadability in Social Networks with Bilingual Option”에 대해, Acamedia Sinica의 Chun-Hsieh Yeh 교수가 “Bilateral Consistency and Converse Consistency in

Axiomatizations and Implementation of the Nucleolus”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는 Rochester대학교 Ronald Jones 교수가 “Comparative Advantage Meets the Level Playing Field”에 관하여 특별 강의를 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NUS의 Yeneng Sun 교수가 진행하였는데, 같은 대학의 Parimal Bag 교수가 “Let's Fix and Gamble: The Lure of Money” 제목의 발표를 했고, 이어서 본교의 주병기 교수가 “Distributive Justice and Fair Allocation”에 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Acamedia Sinica의 Chih-Chun Yang 교수는 “Social Networks of Favor Exchange”에 대해, 그리고 NUS의 Yeneng Sun 교수는 본 행사의 마지막 발표로 “Modeling Infinitely Many Agents”에 대해 발표했다.

##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



2013년 2월 28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을 주제로 하는 1차 학술대회가 열렸다. 본 행사의 제 1부에서 이영훈 교수는 “한국시장경제체제의 역사비교 제도적 접근”에 대해 첫 번째 발표를 했고, 이어 삼성경제연구소 김창욱 수석연구원은 “한국 자영업 부분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는 “한국형 시장 경제의 문제점: 제도와 가치관”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위의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과 한국개발연구원 김

두일 연구위원이 한 시간 가량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2부를 여는 첫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부원장의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과 발전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의 신뢰”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득분배”를 주제로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가 본 행사를 마무리하는 발표를 해주었다. 2부의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주병기 교수와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연구본부장이었다. 7월 5일에는 본 행사의 연장으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 제 2차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 2013 SNU Econ-Sirfe Summer Workshop : Recent Developments in Finance and Macroeconomics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은 올해의 여름학회를 6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금융경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지순 교수의 사회로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순서는 New York University의 Douglas Gale 교수가 맡았다. Douglas 교수는 “Capital Structure and Investment Dynamics with Fire Sales”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박철 교수는 “Monitoring and Efficiency”에 관해 한 시간 가량 발표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본 행사의 2부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시는 세 명의 교수가 발표

에 참여하였다. 그 시작은 New York University와 서울대학교에서 겸임을 하고 있는 Thomas Sargent 교수가 열어주었다. “Fiscal Discriminations in Three Wars”을 주제로 하는 발표였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식 교수는 “Separation of Unit of Account from Medium of Exchange”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마지막 순서로 동 대학의 윤택 교수는 “A New Perspective on the Determination of Nominal Exchange Rate and Price Level”에 관해 발표하였고 그것으로 2013년 경제학부 금융경제연구원의 여름학회가 끝이 났다.

## SSK Workshop on Globalization, Labor Market, and Inequality



2013년 6월 25일 호암교수회관에서는 “글로벌화와 불평등” SSK 연구팀과 “국제경제질서” SSK 연구팀의 주최 하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의 Senior Vice President이자 Director of Research를 맡고 있는 Kei-Mu Yi씨는 “Structural Change in an Open Economy”에 대해 본 행사의 제 1부 처음 발표를 맡아 주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Duke University의 Daniel Yi Xu 교수가 “A Structural Model of Demand, Cost, and Export Market Selection for Chinese Footwear Producers”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발표하

였다. 이어 2부에서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Jeremy Lise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Lise 교수는 “The Macro-dynamics of Sorting between Workers and Firms”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의 절반에 들어서며 3부의 첫 발표는 연세대학교 김용 교수가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의 김대일 교수가 담당하였다. 김용 교수는 “The Price of Experience” 연구를, 김대일 교수는 “Changes in Wage Distribution in Korea during 2000s”를 발표했다. 본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4부에서는 동경대학교의 심성규 교수가 “Political Conflicts and Welfare Dynamics of Trade liberalization”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가 종료되었다.

## 경제학부 김인준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3년간 경제학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해 왔던 김인준(金仁俊) 교수가 2013년 8월 정년퇴임한다. 김인준 교수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2년간 수료한 후 도미하여 미국의 다탘머스대(Dartmouth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았다. 이후 1979년에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인준 교수는 1980년에 본교 사회과학대학에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학부와 대학원에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국제수지론, 국제금융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왔으며, 특히 경제적 식견이 탁월한 인재들을 학계 및 관계로 진출시켜 한국사회의 경제발전 및 성장에 공헌하였다. 국제경제학자로서 김인준 교수는 『국제경제론』, 『자본 자유화론』, 『국제금융론』,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perience』 등 19편의 국·영문저서와 ‘개방경제하의 금융 환율정책’, ‘외환-금융위기와 IMF경제정책평가’, ‘금융국제화와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금융부분’ 등 33편의 논문을 통해 우리 경제학 연구가 선진국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국제경제론』 및 『국제금융론』은 여러 연구 분야 중에서 경제계획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경제학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선물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맡아 정부기관의 금융정책과 경제학자들의 연구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교내에서도 서울대학교 연구부처장, 세계경제연구소장, 경제학부장, 사회과학대학장 등의 보직을 맡으며 대학의 행정업무와 학생지도의 학사업무에 크게 기여해 왔다.

## 교수수상 및 동정

### 김진우 교수 제 43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김진우 교수가 2013년 4월 4일 '제43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 43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으로,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현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에게 주는 최고 권위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우 교수(with Yeon-Koo Che and Ian Gale)는 제비뽑기 등 비시장적인 자원배분 방식이 고전적인 경쟁 시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Assigning Resources to Budget-Constrained Agents')를 저명한 해외 학술지인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2013년 1월에 게재하는 등 시장설계이론(Market design theory)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김소영 교수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



김소영 교수가 2013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 93주년을 맞아 기획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도전하는 경제인』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소영 교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1998년 Amould O Beckman 학술상 수상을 비롯해 2007년 청람 학술상, 2011년 제4회 니어학술상 경제경영부문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류근관 교수 2013년 총장배 구기대회 테니스 남자 일반부 복식 부분 우승



2013년 총장배 구기대회의 테니스 종목에서 류근관 교수가 김재천씨(경영대 대학원)와 팀을 이뤄 남자 복식 부문 우승을 차지하였다. 류근관 교수는 우승 소감으로 "실력은 학생들이 앞섰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 팀이 우세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학내

운동공간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팽창하는 운동 수요에 맞춰 학교가 운동공간의 공급을 늘려야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류근관 교수 제42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서 서울대 우승에 기여



류근관 교수는 제42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의 단체전 A조에서 체육교육과의 박일혁 교수와 팀을 이루어 단체전 6전 전승으로 서울대의 단체전 우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한국교수테니스연맹이

주최하고 전북대학교가 주관하여 6월 1일 열린 제 42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단체전에서 강호 고려대학교 팀을 꺾고 우승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 테니스 팀이 전국교수테니스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198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대 교수 테니스 회는 단체전 A조에 한 팀, 단체전 B조에 세 팀을 출전시켰다. 단체전 A조는 36개팀, B조는 100개팀이 참가하여 전국의 내로라하는 대학 교수들이 시합을 벌였는데, 서울대학교 교수 단체전 A팀은 예선에서 목원대, 조선대, 16강전에서 동의대, 8강전에서 전북대, 준결승에서 충남대, 결승전에서 고려대를 연파하고 우승기를 차지하였다. 단체전에는 각 팀마다 3개 복식 조가 출전하는데 55세 이상 한 조, 54세 이하 두 조로 구성된다. 서울대 단체전 A조 우승팀 멤버는 55세 이상에서 신인식(체육교육)-이정만(지리) 팀, 54세 이하에서 류근관(경제)-박일혁(체육교육) 팀과 권혁승(영문)-이정수(기계) 팀이다.

## 교수 승진



주병기 교수와 이석배 교수가 2013년 3월 1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했다. 주병기 교수는 1993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95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2001년 로체스터대(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주병기 교수는 2010년 본교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미시경제학, 재정학 및 게임이론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이석배 교수는 1996년 본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경제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2002년 아이오와대(University of Iow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석배 교수는 2010년 본교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경제통계학 및 계량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 교수 신규임용



경제학부는 2013년 9월 이재원 교수를 조교수로 임용한다. 이재원 교수는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제학과 수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과 화폐 및 국제금융이다.

부임 이후 첫 학기인 2013년 가을학기에 '고급거시경제학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 동아리 수상소식

### 경제학부 야구팀 Rationales 2012 스누리그 B조 우승



2012년 창단한 경제학부 야구팀 Rationales가 창단 첫 해에 서울대학교 교내 야구대회 2012 스누리그 B조에서 16승 2패(결선 토너먼트 2승)의 성적으로 우승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부 야구팀은 2013년부터 상위 리그인 스누리그 A조에 참여하게 되었다.

## 2013년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 서울대 경제학 45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이 '2013년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를 발표하였다. QS는 수많은 개별학문을 29개 분야로 묶은 뒤 동료학자들이 해당 대학 분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논문을 썼는지, 기업이 그 대학 졸업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세 가지 지표에 따라 학문분야별 랭킹을 매겼다. 그 결과 서울대 경제학은 45위에 올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0위권 내의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 교수 신간 안내

###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



**이근 외 8명 공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3년 7월 출판 예정)**  
 이근 교수는 7월말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주요 아시아 후발국들의 흥망성쇠와 비아시아 국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을 비교하여 한국에의 정책 시사를 도출하는 공동연구 저서이다. 서울대 아시아연구 총서 제 1권으로 발간.

### 현대투자론



**이필상, 최승빈, 이상호, 정강원, 안동현 저**  
**법문사 (2013년 2월 25일)**  
 고전적인 투자이론과 새로운 시각을 접목하는 현대적 투자이론을 설명한 책,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투자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금융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관리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제2장에서는 증권시장의 유형과 증권의 발행, 유통과정 등을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통적인 투자이론의 핵심인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초적 분석의 토대로서 경제, 산업분석 및 기업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채권의 평가와 분석에 대해 살펴 보았다. 채권의 일반적인 유형과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제8장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선택기준을 설명하였다. 제9장에서는 투자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론을 다루었으며, 제10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자산의 균형가격결정과정을 설명하였다.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위험헤지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현대투자이론의 외연을 확대한 옵션과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3장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투자신탁과 투자성과의 평가에 지면을 할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장에서는 전통적 투자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행동의 영역을 투자이론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행태재무에 대해 소개하였다.

### 북한국제화 2017



**박명규, 김병연, 전재성, 장용석, 송영훈 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3년 2월 28일)**  
 [북한국제화 2017]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진이 준비한 중기 비전보고서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평화협정문제, 한반도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와 동북아 지역정세 변화, 대북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북관계 방향 등을 핵심 하위과제로 선정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학계와 전직 고위정책당국자, 현장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바탕을 이룬다.

### Overcoming Financial Crises: The Korean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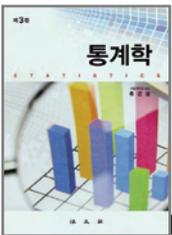
**김인준, 이영섭 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년 6월 1일)**  
 이 책은 저자 김인준·이영섭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논문들을 취합하고 가다듬어 우리나라가 경험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장에 해당하는 Chapter 1 이후 전체 세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아시아 위기를 분석하는데, 특히 이 위기가 동남아 국가들 뿐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까지 발생했는지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 당시 대부분 연구는 아시아 위기가 아시아 국가들의 내재적인 문제점('아시아의 원죄') 때문에 발생했고, 따라서 그 충격도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내재적인 문제 이상으로 국제자본의 책임이 크다고 반박하며, 더불어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IMF가 한국 정부에 제시한 다양한 정책의 상당수가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 위기극복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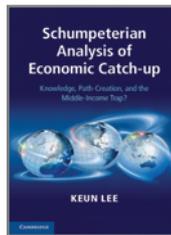
**김인준 저**  
**울국출판사 (2013년 5월 14일)**  
 『위기극복 경제학』은 1997년 금융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위기 상황의 해소를 위한 단기적 극복방안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적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한국과 세계의 위기를 비교 분석하면서 위기극복, 성장과 고용, 소득과 분배, 복지 등을 어떻게 선 순화시킬지 향후 과제를 다룬다.

### 통계학(제 3판)



**류근관 저**  
**법문사 (2013년 2월 20일)**  
 우리 전통의 무게 단위인 '근'과 '관'을 이름자로 가진 운명이 이끌려 계량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는 류근관 교수의 통계학 책. 이 책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사례와 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로 내용이 시작되어 명쾌한 설명과 실습이 계속 이어짐" (정기호 교수, 경북대학교), "마치 강의를 하듯, 쉽고 흥미롭게 기술" (유병삼 교수, 연세대학교), "일상생활의 일부로서의 친근한 통계학을 소개" (김창진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통계적 사고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 (박성현 교수, 한국통계학회 회장 역임), "통계학을 처음 배우려는 사람은 물론 이미 잘 아는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 (박준용 교수, 성균관대학교).  
 류근관 교수의 『통계학』은 기존의 통계학 책과 달리, 동기유발 없이 수식만을 나열하는 서술 방식을 배격한다.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로부터 통계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공식과 논리의 암기 대신 그 의미를 새기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실제 사례 분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Excel을 이용하여 통계지식을 실습시킨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보고 듣는 것보다 경험해 보는 게 낫다. 『통계학』을 펴면 통계학을 경험한다.

###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 income trap



**이근 저**  
**캠브리지대학 출판사 (2013년 9월 출판예정)**  
 이근 교수는 영국 캠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오는 9월 초에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 income trap'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한다. 이는 연구재단 우수학자 지원을 받아 지난 6년간의 노력을 들인 역작으로 후발국의 경제성장의 성과 차이를 특허자료를 이용한 여러 변수들을 이용하여, 국가, 산업, 및 기업이라는 세 차원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밝혀내고, 정책 시사를 제시한 책이다. 한국인 경제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캠브리지대 출판사에 단독저서를 내는 것은 이근교수가 최초이다.

## 시민운동가로 산다는 것



**김 상 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제 나이 50을 넘겨 반세기를 살았음에도, 사실 내 자신을 소개할 말이 많지는 않다. 고등학교 때 한눈팔지 않고 공부한 덕에 재수 경험 없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무난하게 합격'했고, 소설·영화에서 80년대 대학생의 필수코스인 상투화된 언더셔클·위장취업·강제징집 경험을 완전 생략한 채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순조롭게 취득'했고, 운 좋게도 곧바로 서울 시내 대학의 교수가 되어 한순간의 경력단절 경험도 없이 20년째 철밥통 직장 생활을 '여유롭게 향유'하는 중이다. 이력서 기재사항으로만 보면, 이런 범생이가 따로 없다.

그래서 학창 시절의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삼성전자 주춤에서 끌려 나오는 구겨진 내 얼굴을 신문에서 봤을 때, 또는 대통령 비판 발언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상기된 내 얼굴을 TV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그 친구 맞나' 의아해 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어느 순간 내 별명이 '재벌개혁의 전도사' 내지 '재벌 저격수'가 되어 버렸다. 고백하건대,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기획한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의 금융제도와 관련된 것이었고, 자연스럽게 자금의 최대 수요자인 재벌로 연구 주제가 확장되었고, 때마침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금융개혁·재벌개혁 등의 현실 문제에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를 들고 참여연대를 찾아 갔더니 '직접 해보라'고 해서 얼떨결에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이젠 네가 해라'고 해서 무턱대고 소장 직을 이어 받았으며, 그 후론 '잘할 때까지 계속 해라'고 해서 하릴 없이 13년째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순간에서 나를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일련의 선택의 결과 오늘에 이른 것일 뿐이고, 크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이어왔다는 것으로 자위할 따름이다.

사실 시민단체 책임자 일이 녹녹치는 않다. 전철 타면 명함 주고 악수 청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정도로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자유분방한 삶은 진작 포기했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기자들 전화에 잡시의 망설임도 없이 모범답안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 '시민단체 활동은 벤처와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시대를 앞서가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일인지라, 열 개의 사업 중 한두 개만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성공 확률은 낮다. 반면에,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과거의 모든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실패의 비용은 크다. 특히 말실수 하면 끝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언론을 향한 운동'인 경우가 많고, 시민단체 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언론접촉이다. 나 역시 과도하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로 언론노출이 많았다. 그래서 말실수를 없애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가능한 모든 예상 질문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모범답안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집에서 밥 먹다가도 문득 떠오른 생각에 중얼거리다가 아내에게 편지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젠 웬만한 질문에는 원론적 모범답안이 자판기처럼 흘러나온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준비된 토론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쾌한 삶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 좋아서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정실련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일컬어지는 참여연대의 한 부서로 출범했는데, 2006년에 참여연대로부터 분화되어 지금은 독립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참여연대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 우스갯소리로 촛수가 애매하다고들 하는데, 참여연대에서는 모녀시간(1촌)이라고 하고,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자매시간(2촌)이라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일대 혁신으로 평가되는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상법에 죽은 글자로만 남아 있던 소액주주의 권리를 개혁운동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도 많이 받았다.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사회주의적 괴적단체'로,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의 침범'으로 매도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양립 불가능한 비판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이다.

외부의 평가가 어떠한 간에, 나는 경제개혁연대가 이룬 성과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는 약간 명의 상근자 외에 나처럼 자원봉사하는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모두 합쳐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삼성 이견희 회장·LG 구분부 회장·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상법 교과서에도 실린 다수의 중요 판례를 만들 수 있었고,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전환·일감몰아주기 규제 신설 등 경제법의 개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아무리 열정이 넘친다고 해도, 고작 20여명이 모인 시민단체가 사내 변호사만 100명에 이르고 김앤장 등의 우수 법무법인

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재벌총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절반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 가깝다.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고작 20여명이 모인 시민단체가 만들어낸 보고서가 행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들만 모아 놓은 모피아의 기득권 보호 논리를 극복하고 경제법 곳곳에서 불가역의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 가깝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걸 기적이 아니다. 이는 경제개혁연대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남무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믿는다. 좀 더 그럴 듯한 말로 표현하면, '사회가 정당한 게임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주고, 그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소 원칙일 것이다. 그 최소 원칙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30년 후에 도달할 멋진 신세계에 대한 설계도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정글 자본주의로, 유럽대륙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정실자본주의로 전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2012년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것이다. 심지어 작년 11월 16일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35개의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대부분은 그동안 경제개혁연대가 주창해 왔던 것들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권위주의적 人治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매우 불안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벌써 불길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의 보수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나는 요즘 열심히 자기반성 중이다. 내가 주장했던, 아니 진보 진영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가 왜 유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가를 반성 중이다. 보수 진영이 보여준 진화 이상으로 진보 진영의 혁신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보수의 진화와 진보의 혁신이 상호작용할 때만이 이제 막 시작된 경제민주화가 우리의 현실에 착근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지 좋아서 선택한 일'을 앞으로도 꼭 계속 해나갈 작정이다.

### 〈학력 및 주요 경력〉

1985.2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졸업  
1987.2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졸업  
1993.8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졸업

1994.3-현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2006.9-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  
2001.9-2006.8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2003.7-2004.6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1998.7-1999.6 대통령 자문기구 노사정위원회 공익책임 전문위원

## 싱가폴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느낀 점들



윤경 (4학년)

저는 이 지면을 빌려, 작년 한해 동안 제가 싱가포르 경영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지내면서 느낀 점들을 경제학부 동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교환 학생을 갈 국가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

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금융 허브로 성장한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습니다. 또, 2000년에 설립되어 역사가 짧지만, 왓슨 스킨을 벤치마킹 했다는 싱가포르 경영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년 동안 이 곳에서 지내면서 싱가포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는 싱가폴은 저에게 막연하게 느껴지던 나라였습니다.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 접해볼 수 있었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은 만나본 적도 없고,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년 동안 지내면서 알게 된 싱가포르의 모습에 대해서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싱가폴은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갓 독립한 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척박한 신생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택해와, 이제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제가 인상을 받았던 점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싱가폴은 독특한 차별화 전략으로 주변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나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싱가포르를 다양한 인종과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주거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항공 교통의 중심지, 중개 무역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거쳐가지는 않을 수 없게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가 수십 년 동안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위기를 겪을수록 그 자리가 더 공고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폴은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선 싱가폴은 영어를 제 1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화교가 7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이지만, 말레이 계, 인도 계 등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조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언어 정책이었습니다. 싱가폴

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개를 공용어로 지정하면서도 영어를 제 1의 공용어로 내세우는 정책을 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여러 인종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인종이 모두 종교가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등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갈등 없이 살아가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싱가폴은 각 종교 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매월 각기 다른 종교의 축제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지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했습니다. 싱가폴은 기본적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 동남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주변 국가 사람들이 오고 가기 편리합니다. 거기에 현대화된 편리한 공항과 공항에서 도심까지 신속한 접근성을 접목해 싱가포르를 이 지역의 항공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나라의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모여들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싱가폴의 또 다른 지리적 이점 중 하나는 싱가포르가 예로부터 해상 중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싱가폴은 금융뿐만 아니라 원자재 중개업, 해운, 항공, 의료, 관광, 국제 회의 등의 각종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 우리 학교 동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업보다도 세계는 생소했던 원유 트레이딩 관련 업에 중사하시는 선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는 막연히 금융 허브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싱가폴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대신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적극 유치했다는 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싱가폴은 여러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 퀴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 교통이 편리한 점, 각종 인프라를 잘 갖춘 점, 세금,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싱가폴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교를 계속 신설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실용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싱가폴에는 유명한 종합 대학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난양 기술 대학이 있지만, 2000년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싱가포르 경영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역사가 오래된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가 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싱가포르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보다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싱가포르 경영 대학교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싱가폴 경영 대학은 학생의 리더십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제가 수강하였던 신입생 필수 과목인 Leadership and Team Building에서는 팀 단위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청소년들에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활용법과 주의점을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학교를 섭외하는 모든 과정을 밟로 뛰어야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매번 팀원들의 각자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다. 하지만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팀원들 모두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막연하게 글로벌 배우지 않고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해 매우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영 대학에서는 리더십 수업 외에도 소규모 세미나 식 수업을 통해 활발히 토론을 벌이고, 실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에는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성장 뒤엔 그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싱가포르에선 정치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가 조심스러우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한 환경단체에서 활동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잘 이루어지는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아 논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각종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큰 매력을 느끼고,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학교 학생들이 교환 학생을 갈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지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문들이 그보다는 좀 더 세계를 넓게 보고 다양한 국가에 가서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여름 내가 만난 중국



박현민 (석사과정)

### 0. 들어가며

저는 지난여름 1기로 참여했던 Korea China LEADership Exchange Program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Korea China LEADership Exchange Program은 매해 여름 각 각 서른 명 내외의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열흘 씩 함께 지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인 학생 3명과 중국인 학생 3명이 한 조가 되는데, 오전에는 각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오후에는 조별로 자유롭게 견학 활동을 합니다. 좁게는 이 프로그램, 넓게는 평소에 만나지 않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 1. 떠남

난 중국에 대해 잘 몰랐다. 중국어도 못했다. 중국 역사도 국사 시간에 배웠다가 지금은 희미해진 기억이 전부였고, 당연히 중국을 가본 적은 없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도 '약기 하나를 잘 다루면 좋겠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면 좋겠다.', '요리를 제대로 배우면 좋겠다.' 등의 생각을 하곤 했는데, 중국도 그 목록의 일부였던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고, 중국 땅을 여행하고 싶었다.

그런 내가 우연히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Korea China LEADership Exchange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큰 고민도 기대도 없이 지원을 했다. 그저 졸업하기 전 추억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 대해 배우고 싶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답답하게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난다. 운이 좋았는지 1기 구성원으로 뽑히게 되었다.

일찍 공항에 모이는 일정이야, 동이 뜨기 전 서울대 정문에서 출발하는 첫 공항 리무진을 탔던 기억이 난다. 런던 올림픽 기간이었다. 공항의 새벽은 한산했고, 텔레비전 앞에만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었다. 서른 명의 한국인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중 한 텔레비전 앞에 모였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결국 대한민국 대표 팀이 이겼다. 그 날의 경기는 데면데면한 우리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참 좋은 소재였다. 올림픽으로 시작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중국 관련 경험으로 이어졌다. 설렘과 어색함이 몽글몽글 섞여 있는 그 날, 나는 다른 참가자들을 보며, '와 참 다양한 경험을 가진 똑똑한 친구들이 많구나,'라며 내심 감탄하던 기억이 난다.

### 2.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내 기억 속의 베이징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도시이다. 사람이 아주 많고 땅이 아주 넓어서 마치 읽어도, 읽어도 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꺼운 소설책의 느낌이였다. 첫 본거지는 베이징 대학이었다. 베이징 대학과 호텔 사이를 오고 다니며 우리는 베이징 시민들의 후덥지근한 일상을 매일 가로질렀다. 온갖 과일을 파는 행상, 속옷 상의를 위로 돌돌 말아 배를 내놓고 노름을 하는 심각한 표정의 아저씨들, 연인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청년..... 낯설지만 거리낌 없이 인간다운 풍경은 내 마음을 묘하게 편안하게 했다.

베이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저녁은 조원들과 한 첫 외출이었다. 호하이라는 호수 옆 카페 거리에 가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는 코스였다. 중국인 조원 셋이 모두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녀서 이틀만 민으면 되겠다며 내심 좋아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 택시를 불러 잡는 데에만 반시간 남짓 걸린 것 같다. 그렇게 겨우 대학가를 빠져나가자마자, 러시아워의 베이징 시내가 나타났다. 꽉 막힌 도로에서 움짱달짝 못하다 결국 지하철로 갈아탔다. 서울역의 두 배는 되는 지하 통로, 그 드넓은 공간을 꽉 채운 엄청

난 인파를 가로질러 겨우겨우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도 꽤 오래 걸었던 것 같다. 그 때 중국인 조원들의 표정들을 떠올리면 미소가 번진다. 빠른 중국어로 자기들끼리 회의하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한국인 조원들을 바라보기를 반복했다. 나름대로 고심해서 계획을 짰는데, 저녁 먹기도 전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하는 착한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난 그래서 그들에게 더 정감이 갔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예절을 따르기 위한 규격화된 친절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다는 자연스런 진심이 전달되었던 것 같다. 물론 힘들게 찾아간 보람도 있었다. 저녁 식사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저녁의 호숫가가 꿈꾸듯 낭만적이었다.

프로그램 초반에 나와 같은 조 언니는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지자는 의도로, 저녁에 함께 맥주를 마실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중국인 친구들은 술을 즐기지 않았다. 저녁에는 책을 좀 읽다 자고 싶다며 정중히 맥주 파티를 거절했다. 오히려 역으로 과일을 먹으러 오라며 우리를 기숙사로 초대했다. 건강이나 종교와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없는 데에도 아직까지 술을 마셔 본 적이 없는 친구도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조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아도 상황은 비슷했다. 중국인들은 식사 후의 음주가무보다 식사 자체를 즐기며 친목도모를 한다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문화다.

상하이는 베이징과 많이 달랐다. 베이징에서 사람의 체취가 느껴진다면, 상하이는 말하자면 향수 냄새가 나는 도시였다. 줄줄이 시원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과 그 안에 입점한 고급 브랜드 상점들! 이때쯤에 우리는 모두 상당히 친해져서, 이제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온 기분으로 세련된 도시를 누볐다. 상하이에서 몇몇 조들은 국적 불문 함께 모여 한국식 노래방에 갔다고 한다. 일정상 함께 기다려야 할 때에는 벌칙만 바꾼 한국식 술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친구들이 점점 '한국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우리들 사이에 돌았다.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밤, 프로그램 참가자들 모두 도심의 야경을 감상하는 유람선을 탔다. 유람선 갑판은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왁자지껄 북볏다. 진청색 강물과 맞닿은 밤하늘, 알록달록 빛나는 고층 빌딩,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아쉬움과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들. 그 날 남긴 사진들은 유난히 생생하다. 우리 조는 일찍 선실로 내려와 셀카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망가진 표정의 웃긴 사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찍으며 킬킬댔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아직 만났지 열흘도 되지 않았었다.

### 3. 서울 그리고 부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참가자들끼리 소곤거린 내용이 있다. 한국에서 어떻게 중국인 친구들을 안내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내용이었다. 중국에는 워낙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았고, 중국인 친구들은 성심성의껏 우리를 안내해주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외국인 여행객의 시선에서 서울을 보니, 가 볼만한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한편 한국 학생들은 중국의 명소에 대해 잘 알았지만,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 무엇이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 잘 몰랐다. 열심히 각 조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한 덕에 겨우 자유 시간을 의미 있는 기억들로 채울 수 있었다.

우리가 특히 걱정했던 것은 음식이었다. 음식에 관해서라면 중국인들이 보기에 뭐든지 다 맛있고 평범해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국인 친구들은 뜻밖의 한국 음식들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처음 학교 매점에 데려갔을 때, 음료들이 무슨 맛이냐고 꼼꼼히 물어보고 골똘히 고민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결국 그렇게 고른 후식은 바나나우유였다. 식사 메뉴 중 우리 조 중국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삼겹살이었다. 중국인들에게는 고기를 식탁 위에서 구워먹는 문화가 생소하다고 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삼겹살이 구워지는 모습에 신나하는 중국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재미

있었다. 다른 조 중국인 친구가 껏있을 먹어 보고는 치약 맛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는 이야기가 참가자들 사이에 퍼지기도 했다.

한국 일정 중 다 함께 부산에도 다녀왔다. 단 하룻밤을 묵는 일정이라 다들 그 날 저녁 자유 시간을 부산의 엑기스로 채워 넣으려 애썼던 것 같다. 중국 조원들이 회를 좋아하지 않는다하여, 우리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밥을 먹고 부산 관광을 시작했다. 그날 부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짙짙 방도 다녀오고 젊음 가득한 자정의 해운대도 구경했지만, 광안리에서 디스코팡팡을 탔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다. 디스코팡팡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빙글빙글 도는 회전판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앉고, 디제이가 버튼을 누르면 회전판 바닥이 툭툭 튀어 사람들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이다. 우리 조 막내 중국인 친구는 겁이 많은 소녀였는데, 나머지 조원들이 장난기가 발동해 디스코팡팡을 함께 타고 설득 공세에 나섰다. 결국 그녀는 꼬임에 넘어왔다. 그런데 회전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재미가 붙을 무렵 이 친구가 내리게 해달라며 울기 시작했다. 결국 디제이는 잠시 회전판을 멈추어야 했다. 함께 내려 그 친구를 달래느라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저게 안 무섭냐고,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원망이 말도 아니었다. 그 날 이후 동생처럼 귀여운 그 친구를 놀리는 재미도 쏠쏠했다.

### 4. 그 후

LEAD 1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종종 모였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고등교육재단 연례행사에서 만나기도 했다. 몇몇 중국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후속 모임이 잘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흔치 않을 것 같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LEAD 프로그램을 기획한 재단에서는 각종 행사에 초대해서 인연을 이어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참가자들 스스로도 서로 연락하고 모이는 것을 좋아했다. 추측해보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내가 본 참가자들은 대부분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다. 치열하고 진지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프로그램에 열중하던 기억이 소중한 것 같고, 그 기억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을 만나, 자유로웠던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닐까?

### 5. 돌아보면

어떤 곳을 누구와 여행하든, 여행지에서는 자신의 일상이 보다 객관적으로 보인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신경 쓰던 일이 작게 보이기도 하

고, 내 일상에서 늘 스쳐지나가던 소중한 요소가 갑자기 마음에 와 닿기도 한다. 지난 여름에도 결국 그런 경험을 한 것 같다. 다만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하는 여행과 다르게, 새로 만난 다른 참가자들 덕분에 그 경험이 증폭되었다. 서로 다른 곳에 서로 다른 일상을 잠시 접어 두고 함께 모인 육십 명 사이에 녹아 있는 것은 참 색다른 경험이었다.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적인 친밀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내 머릿속의 추상화된 '중국인'과 참여 후의 '중국인'은 많이 다르다. 나는 별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면서도, 중국인들에게 일종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성장 배경과 사고방식이 달라서 일정 선 이상은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 말이다. 그 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면 과장일 것이다. 하지만 그 거리감이 기대 이상으로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중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이들과 말이 이렇게 잘 통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했다. 누구의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대화했지만, 진심과 진심은 통했고, 놀랄 만큼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내가 경험한 중국은 그 넓고 깊은 나라의 한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한 조각은 정말 큰 경험이었다. 비슷한 기회를 두고 망설이는 선배나 후배, 친구가 있다면 '질러보라'고 권하고 싶다. 한 살 한 살 더 많아질수록 사람과 사람이 편하게 만나는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다. 사회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다. 오랜 친구가 아니라 새로 만난 사이라면, 서로 마음을 여는 단계가 되기까지 어렸을 때보다 오래 걸린다. 나에겐 그런 점에서 Korea China LEADership Exchange 프로그램에서 보낸 시간이 소중한 것 같다. 일상을 접어 두고 새로운 사람들과 보내는 진하고 인간적인 시간들. 잘 모르던 나라에서 느낀 의외의 친밀감. 일상에 매몰되어 좁아질 수 있었던 나의 시각을 조금이나마 넓혀 주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경제학부 서포터즈

### ● 경제학부를 서포트한다!

경제학부는 40여 훌륭한 교수님들과 800여 명에 육박하는 명석한 학부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큰 학과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워낙 큰 탓에 같은 경제학부 구성원임에도 서로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부 구성원들이 서로 알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경제학부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님의 지도 아래, 경제학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여 경제학부 동기, 선?후배, 사제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혀 궁극적으로 모두가 더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둘러보실까요?

### ● “스승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 Meet your professors



대형 강의가 많은 탓일까요? 학부생들에게 언제나 멀게만 느껴지는 경제학부 교수님들. 그러나 기회만 된다면 평소에 존경했던 교수님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학부생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며, 교수님들 또한 가르치던 제자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자리를 반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해주실 교수님들을 섭외하고, 교수님을 찾아뵙고자 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흔쾌히 시간을 내 주셨고, 정말 많은 학부생들이 교수님들을 뵙기 위해 저희 행사에 문의를 해 주었습니다. 한 교

수님 당 예닐곱 명의 학생들이 모여 교수님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카네이션과 간단한 선물도 드리고 많은 덕담과 학창시절의 경험담, 재미있는 일화 등을 듣고 또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경제학부 친구들 여기여기 모이자! - 경주의 밤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매년 11월 학부생과 교수님들이 함께 자리하며 송구영신의 시간을 함께 맞이하는 '경주의 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11분의 교수님과 130여 명의 경제학부 재학생, 졸업생들이 기숙사 글로벌하우스에서 열린 '경주의 밤'에 함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과 장기자랑으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각양각색 동아리들의 소개 시간을 보며 다양한 경제학부 동아리들의 면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테이블에 어울려 시간을 보내며, 술자리에서 빚기 힘들었던 교수님들과 진솔한 대화의 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학과 사무실의 실무적인 지원과 조언, 학부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는 것으로 서포터즈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듣다! - 진로탐색 강연회&멘토링 인터뷰



학부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저희 서포터즈는 사회에서 활약하고 계신 경제학부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구하여 이를 다른 경제학부 학부생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개최한 진로 간담회에는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학부생들에게 진솔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말씀을 더 많은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끝에, 2012년 저희는 한국은행, 행정안전부, 로펌, 방송사, 회계법인, 자

산운용사 등 다양한 직종에 계신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종에 대한 선배님들의 생각,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선배님들의 조언 및 충고, 위로와 격려가 담긴 인터뷰 내용은 서포터즈에서 발간한 '經友'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통해 많은 경제학부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 후배님들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신입생 여름 경제학부 멘토링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관심은 대학생활을刚开始한 후배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름 방학 동안 저희는 전공진입 이전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이번 2013년 여름 방학에는 2013학번 경제학부 신입생들과의 만남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경제학부에는 어떠한 전공 강의들이 있으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는지, 전공진입 이후 과목선택에 있어 어떠한 선수와목들을 들으면 유익한지, 졸업과정은 어떠한지 등 전공진입 이전에 들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이 밖에도...



그밖에 경제학부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서포터즈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졸업사진 촬영이나 앨범 제작, 학부 차원에서의 강연회 행사 등에 대한 홍보 및 보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부 서포터즈 장터, 경제학부 야구점퍼 제작 등 경제학부 전체가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알아볼 수 있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구성원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한 내부 행사로서 시기별로 등산이나 벚꽃구경, 단풍놀이 등 자연을 느끼러 나가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도교수님이신 이준구 교수님과 함께 관악산 등산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단체로 교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 2013년 봄학기 경제학부 스승의 날 행사

### - 경제학부 서포터즈 주관

경제학부에는 대형 강의도 많고, 출석을 부르는 일도 적은 편이기에 한 학기동안 여러 전공 강의들을 들으면서도 교수님과 직접 이야기 해 볼 기회는 거의 없다가피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은 학과 사무실에서 공지해주는 엑셀 차트에만 덩그러니 있고 어느 분인지 잊어먹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직접 교수님을 찾아뵙자니, 연락은 어떻게 드려야하고, 어디로 찾아뵙어야 하는지 이리저리 걱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교수님과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주선자의 역할을 맡아,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 봄학기 스승의 날 행사에는 5월 6일 이준구 교수님과 김소영 교수님을 시작으로 6월 11일 윤택 교수님까지, 총 23분의 교수님들과 1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해준 학우들에게 듣는 말은 '교수님과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라서 혹은 이러한 상황이 낯설어 어떤 대화를 나누

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기도 하지만, 교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우들은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강의실 저 멀리서만 보던 교수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는 학우도 있었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교수님과 길에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유익한 내용을 얻었다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 옛날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들

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이슈에 관한 교수님의 생각,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조심스런 조언들까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교수님들이 더욱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졌던 점이 좋았다고 학우들은 말했습니다.

올해로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3번째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듣는 교수님들의 격려와 학우들의 호응에 감사드리고, 더 나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3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864명 중 198명(전액 장학금 64명), 대학원생 36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항상 장학금을 통해 4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상대동창회 졸업생 포상 및 장학금 전달**

박현민 학생이 성적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상대동창회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고영인 학생 외 39명이 상대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2013학년도 항상장학금 수여식**

2013년 2월 28일 경제학부 학부장 윤택 교수가 프레젠테이션 매화홀에서 34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항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3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3년도 전기 졸업식이 2월 26일(화)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남국현(1명) 박사를, 김하영 외 34명의 석사를, 박현민 외 171명의 학사(최우등 53명, 우등 71명)를 배출하였다.

**2013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3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25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

해 총 7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3년 6월 24일 ~ 2013년 8월 2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2: 제도', '경제통계', '정치경제학입문' 및 '경제수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제학부는 2013년 전공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부안내 오리엔테이션을 2월 23일에 개최하였다. 학부장 및 부학부장을 비롯한 경제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여 전공신입생들을 환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을 환영인사와 함께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 주었다. 행사 후 교수들과 학생들은 점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경제학부에서는 2013년 봄학기 스승의 날 행사를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주관으로 5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제학부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개별적 만남을 가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학부는 약 1000여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자유로운 사제 간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이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올해 행사에서는 23명의 교수와 140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3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Jihong Lee	Mathematics for Economists Studies in Microeconomics
Xifang Sun	Principles of Economics 1 Studies on the Chinese Economy
Oyvind Thomassen	Principles of Economics 2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Economy
Thomas J.Sargent	Special Lectures in Macroeconomics Topics in Macroeconomics
이승훈	The Korean Economy
Chenggang Xu	Topic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Economic Systems

**2013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3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2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17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1명의 터키 학생과 1명의 에티오피아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3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3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이 중 2013.2학기에 1명, 2014.1학기에 2명이 파견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김대중(두산중공업 고문, 동문) 500만원(학술)
- 손병옥(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500만원(이석영장학기금)
- 서울상대항상장학회 1,000만원(학술 및 장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mail : kang97@snu.ac.kr

##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제 26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8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ASP과정의 특전

-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ASP 입학안내

- |  |   |
|--|---|
| ① <b>모집인원 :</b> 40 명 내외  | ④ <b>모집횟수 :</b>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
| ② <b>입학자격</b>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br>2) 3급 이상 공무원<br>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br>4) 금융기관의 임원<br>5) 기업의 임원<br>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⑤ <b>이수요건 :</b>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 ③ <b>전형방법 :</b>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⑥ <b>모집안내</b> - 전화 : (02)880-5432 - Fax : (02)875-9867<br>- email : asp@snu.ac.kr - Home Page : http://ier.snu.ac.kr<br>-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br>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

## ASP 25기 회원명단

- |                           |                                    |
|---------------------------|------------------------------------|
| 1. 김용두 이트레이드증권(주) 상무      | 15.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
| 2. 김원환 SK해운(주) 상무         | 16. 은 경 자산관리공사 실장                  |
| 3. 김응민 삼성화재 상무            | 17. 이상근 (주)상보 전무이사                 |
| 4. 김정원 삼성물산주식회사 상무        | 18. 이영호 삼성물산주식회사 부사장               |
| 5. 김창배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관리처장     | 19. 이주형 금융감독원 국장                   |
| 6. 김충진 금융결제원 실장           | 20. 이천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
| 7. 문경희 (주)아우토플라츠 대표이사     | 21. 이태준 IBK기업은행 부장                 |
| 8. 문연호 김포시 부시장            | 22. 이형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
| 9. 설영오 신한은행 부행장           | 23. 임석순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
| 10. 소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4. 정연호 NH농협금융지주 상무                |
| 11. 심동욱 POSCO 상무          | 25. 차재연 KT 상무                      |
| 12. 양정원 삼성자산운용 전무         | 26.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대변인, 국방대 파견) |
| 13. 연제훈 삼성생명 부사장(개인영업본부장) | 27. 한경수 KB국민은행 법무·준법 본부장           |
| 14. 윤대철 딜로이트컨설팅 상무        | 28. 한태경 (주)신한생명보험 상무               |



(ASP 25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 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mailto: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